

제1기 대졸자취업능력향상과정 교육생 취업안내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연수부에서는 대졸자 취업능력향상 15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수료예정자 명단을 발표하고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담당자 이상덕 032-560-7775

일산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경기도 고양시는 26억7천만원을 들여 일산구 범곡동 자유로변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에 자외선 소독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市)의 이런 조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부터 대장균수(1ml에 3천마리 이하)가 방류수 수질 기준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특히 오는 2008년부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예를 들어 BOD 20ppm에서 10ppm으로)됨에 따라 오는 2005년 100억원을 들여 고도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LG칼텍스정유, 3연속 환경친화기업 지정

LG칼텍스정유(주)가 국내 정유사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

LG칼텍스정유는 최근 “지난 96년 5월 영산강환경관리청이 3년 주기로 평가·지정하는 환경친화 기업으로 처음 선정된 뒤 99년에 이어 이번까지 3회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환경문제를 자체진단하고 개선계획을 마련, 시행했으며 VOC(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위해 최근 5년간 20억7천만원을 들여 저장탱크를 개조해 환경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정유업체가 1-2회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사례는 있으나 연속 3회 지정된 곳을 우리회사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5년간 환경개선을 위해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절약 협약 62개사 참여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동관리하는 자발적협약(VA)참여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98년부터 연간 5천TOE(석유환산톤)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관내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협약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50개사가 협약에 참여하고 지난 7월 25일 12개사가 추가 협약식을 가짐으로써 77.5%의 협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한 참여업체는 화공분야의 (주)케이피케미칼, 태광산업(주) 석유화학 1.2.3공장, (주)케이엠씨, 한국산업가스(주) 울산2공장, (주)휴비스, 울산화학(주) 등 8개사를 비롯, 금속분야의 엘지니코동제련(주) 온산공장, (주)풍산 온산공장, 한국프랜지공업(주) 제2공장 등 3개사, 요업분야의 태원물산(주) 울산공장 등 총 12개사다.

환경부 공채 합격자 56%가 여성

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8-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의 합격자 45명 가운데 여성이 25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지난 7월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21일 실시한 환경직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합격한 여성 응시자의 수가 8급은 10명중 1명, 9급은 35명중 24명 등 모두 25명으로 전체 45명의 절반을 넘었다.

합격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 재학생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졸 이상이며 석사학위 소지자도 3명(8급 2명, 9급 1명)이나 됐다.

수도권대기질 토론회 개최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7월 25일 오후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은평구 불광동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 대책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반면 경기도는 "아직 개발 여지가 많은 경기지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체의 배출 총량 규제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연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배출 총량 규제로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만큼 다른 업체들이 도내공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업계는 "기존의 농도 규제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총량 규제가 시행되면 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시범실시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대구환경청, 업체 지원행정 큰 호응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한 업무 처리를, 시도·단속에서 지원 위주로 바꿈에 따라 관련 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25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올 초부터 업체들에 우수 환경관리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동종 업체간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정보교환관을 자체 홈페이지(www.daegu.me.go.kr)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대구·경북 220개 업체가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특히 LG필립스디스플레이(주)의 흑연 현상수 재활용기술 등 17건의 우수 환경관리 정보가 발표되기도 했다.

또한 대구환경청은 간부와 직원들이 기술 부족으로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58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89건의 기술을 지원했으며, (주)LG실트론 2공장 등 2개 업체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신규 지정되도록 하는 등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환경 개선에 나서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유익한 환경관련 정보와

기술을 제공받음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에 지원 행정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다"면서 "앞으로 환경관련 정보와 기술 지원을 더욱 확대, 수혜 업체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환경보고서 워크숍 개최

환경부는 지난 8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업의 환경보고 및 환경성과 평가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환경관련 기업과 금융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 이 워크숍은 환경부가 최근 확정된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2002"를 계기로 기업의 환경보고서 발간과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환경성과 평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워크숍에서는 포스코 경영연구소의 이병욱 박사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주)에코프론티어의 정정만 소장이 "금융기관의 기업 환경위험 및 환경성과 평가"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환경부인사

- ◇과장급(3급) 전보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尹鍾洙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장 全泰峰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장 申元雨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장 尹丞準
- ◇과장급(4급) 전보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李南雄 ▲환경정책국 정책총괄과장 李彌載 ▲환경정책국 환경경제과장 金元民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장 安文洙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申寬浩 ▲환경부 근무(국무조정실 파견예정) 金龍鎭
- ◇과장승진 ▲중앙환경담사기획단장 鄭址奉 ▲자연보전국 자연생태과장 南光熙 ▲대기보전국 교통공해과장 朴天圭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尹榕文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金成東
- ◇환경부(국장급 전보) ▲환경정책국장 尹성규 ▲수질보전국장 문정호 ▲공보관 작대 김지태 ▲해의 파견 이규용

